

심사보고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 금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78
----------	-----

2024. 9. 11.(수)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자: 김현문 의원 등 10인

나. 발의일자: 2024년 8월 28일

다. 회부일자: 2024년 8월 29일

라. 상정일자: 2024년 9월 4일

(제4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김현문 의원)

가. 제안이유

○ 카지노 운영업체가 충청북도 청주시 율량동 유·초·중·고교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에 이른바 ‘학교 옆 카지노’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충청북도민은 카지노 입점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카지노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규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입법의 미비에서 찾을 수 있음
- ‘학교 옆 카지노’ 문제를 방지하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카지노업을 규제 대상으로 신설하는 위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임
- 전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교 옆 카지노’ 문제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도박 중독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국회 등 관계기관에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함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원호)

가. 건의안 개요

- 본 건의안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보호를 통한 학생의 온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 행위 규정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카지노업’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주요 개정 사항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 처리를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음
 - 현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0일 송재봉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소속)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7월 24일 상정되었고, 2024년 9월 3일 교육위원회 심의(수정 가결)를 거쳐 현재 법사위체계자구심사 중에 있음

나. 주요내용 검토

- 현재 우리사회는 청소년의 PC,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온라인상에서의 도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함께 도박 자금을 구하거나 빚을 갚기 위해 학교폭력·절도·사기, 마약배달 등 2차 범죄로 연계되는 등 도박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가 양적·질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청소년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0월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무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대검찰청,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팀’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 충북의 경우 지난 3월 강원도 카지노 운영업체가 청주시 율령동에 소재한 호텔과 카지노업 운영을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교육기관 및 교육관련 단체 등이 반대운동을 펼치며 교육환경 보호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음

- 카지노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은 반경 500m안에 7개의 유·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이중 2개 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인 200m 내에 위치해 있으며,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업이 운영될 경우 학생과 주민의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 및 주거·생활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큰 상황임
 - 이에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지역사회 반대 의견을 반영하여 이 지역에 카지노 입점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현재 청주시가 해당 호텔의 카지노 영업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불승인’ 처분했지만, 해당 호텔이 청주시를 상대로 사업계획 변경승인거부처분최소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 행위 규정에 카지노업이 제외되어 있어 카지노를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고 할 경우 해당 관할청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카지노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현행 「교육환경법」 제8조제1항1)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하는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으로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되며,²⁾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 종말 처리시설, 가축 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악취 배출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사체 등 소각매몰지,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도축업 시설, 가축시장, 제한상영관, 청소년유해업소 등이 있지만(법률 제9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카지노업은 제외되어 있음
- 따라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교육환경을 보호하는데 시대변화와 지역사회 현황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³⁾에 따른 ‘카지노업’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2)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구분

구 분		제한 내용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 지역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행위 및 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에 대한 설치 가능여부 결정

3)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을 추가하고, 상대보호구역 내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사료됨

다. 종합 검토의견

- 현재 우리사회에서 청소년 도박중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와 관련된 교육적 유해 환경을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앞서 기술한 검토 사항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이 요구됨
-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1)의 '카지노업'을 포함시키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9조제32호 신설)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법률안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금지행위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실효성 있고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과 실효성 있는 시행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건의안의 취지와 필요성, 시급성, 주요내용이 인정되어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1)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지난 3월 강원도의 카지노 운영업체가 충북 청주시 율량동 소재 한 호텔과 카지노업 운영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진 후, 지역 학부모 및 시민·교육단체 등 충북도민은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카지노 입점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고, 충북도의회 또한 지난 6월 '청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여 반대 운동에 동참해 왔다.

카지노 입점 예정 지역은 해당 호텔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7개의 유·초·중·고교(학생수 5,472명)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 카지노업이 운영될 경우, 건강한 환경 속에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사행성 조장으로 인해 쾌적한 주거환경권 또한 중대한 훼손이 있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된다. 특히, 위 학교 중 2개 학교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인 호텔 반경 200M 내에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 침해가 크게 우려가 된다.

이후 청주시는 해당 호텔의 카지노 영업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했고, 충북도민의 압도적인 카지노 입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해당 호텔은 청주시를 상대로 사업계획변경승인 거부처분취소를 목적으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카지노 입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법 제9조의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카지노업'이 규정되지 않은 입법의 미비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카지노업 입점으로 인한, 이른바 '학교 옆 카지노' 논란은 「관광진흥법」 제 21조를 충족하는 경우 전국 어느 도시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즉,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카지노업'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학교 옆 카지노'를 제한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주시를 지역구로 둔 송재봉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심사중에 있다.

현행 법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는 오락실, PC방, 비디오방,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사행성의 우려가 크고 교육환경을 더욱 훼손할 수 있는 '카지노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개정안에 '카지노업'을 규제 대상업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 옆 카지노' 사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도박 중독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등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도 해당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국회와 정부 부처에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학교 옆 카지노'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관계기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

2024년 9월 11일

충청북도의회